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3. 1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3/4~3/8)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1월 PCE가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ISM 제조업 PMI의 경기 위축세 시사에도 연준 위원들 간 상충된 발언에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 이어 중국 전인 대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되며 환율은 상승 전환
-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ECB 통화정책회의 등을 앞두고 방향성 제한되며 보합
- 후반,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한 측면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달러 약세 영향 속 하락. 이어 주 후반, 파월 의장의 피벗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에 약달러 심화되는 가운데 1310원대 후반으로 하락 마감

##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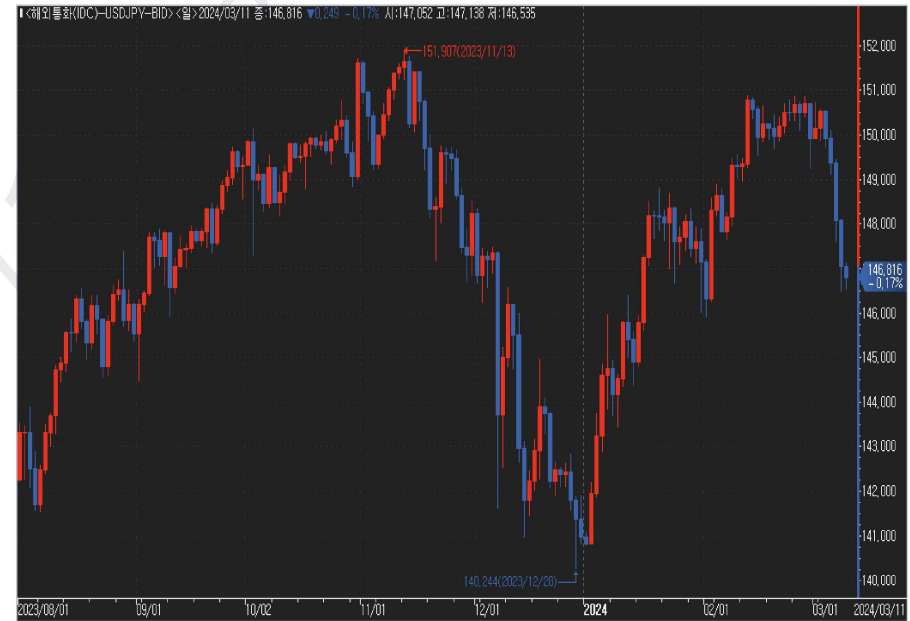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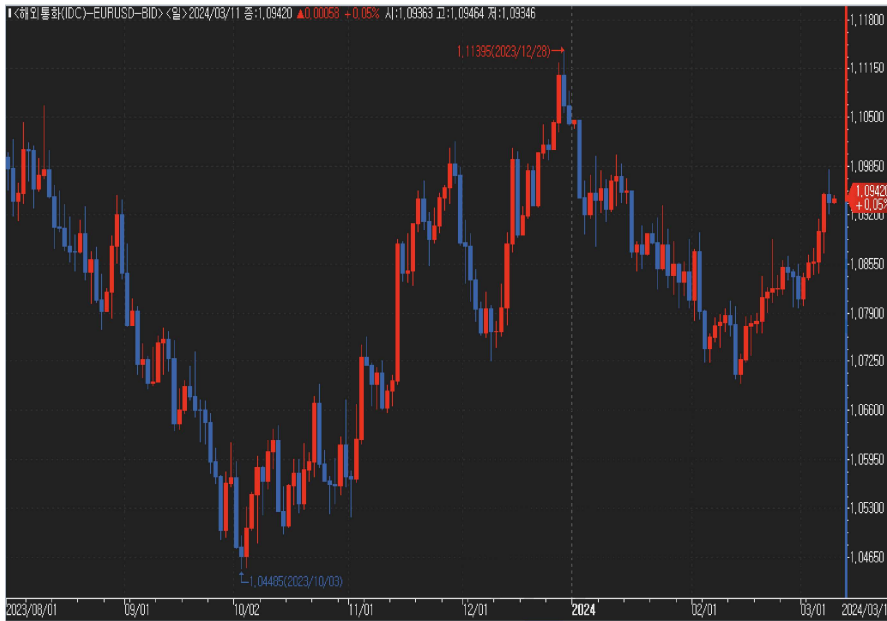
- 미국 비농업고용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실업률이 상승한 영향과 시간당 임금 상승 둔화 등에 따른 고용지표 냉각 조짐 우위 영향 등이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 하지만 금주 예정된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 강화와 전주 후반 기술주 급락 등에 따른 뉴욕 증시 부진 등에 따른 위험회피 가능성 및 국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약화 가능성 등이 환율 하단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1.5	1337.7	1319.2	1319.8	-11.7

## 예상거래범위

1,310원 ~ 1,330원

# 엔·유로화 동향 (3/4~3/8)



## 유로화 동향

- 주초, 이번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유입되며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ECB의 선제적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 등 불확실성 지속되며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보합
- 중반, 파월 Fed 의장의 연내 금리인하 언급으로 달러 가치가 큰 폭 하락한 측면 반영하며 강세 지속
- 후반, ECB 관계자들이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연이은 비둘기 발언에 달러 대비 강세. 이어 주 후반, ECB 위원의 여름 전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로 연준 보다 정책 전환 시점이 구체화되었다는 평가에 강세폭 일부 되돌리며 마감

##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인사의 금리인하 후 동결기조 유지 필요성 주장에 미 국채금리 상승한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2월 도쿄 지역 근원 CPI가 2% 대로 상승하며 BOJ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지지 받은 영향으로 강세 전환
-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피벗 가능성 언급과 BOJ 관계자가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강세 지속
- 후반, BOJ 총재의 초과 기준율 인상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종료 가능성 언급 등이 엔화 강세를 견인하며 강세 심화. 이어 주 후반, 미국 실업률 증가로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BOJ의 양적완화 정책 수정 가능성 등에 큰 폭 강세 시현하며 147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38	1.0981	1.0838	1.0936	+0.009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0.2	150.6	146.5	147.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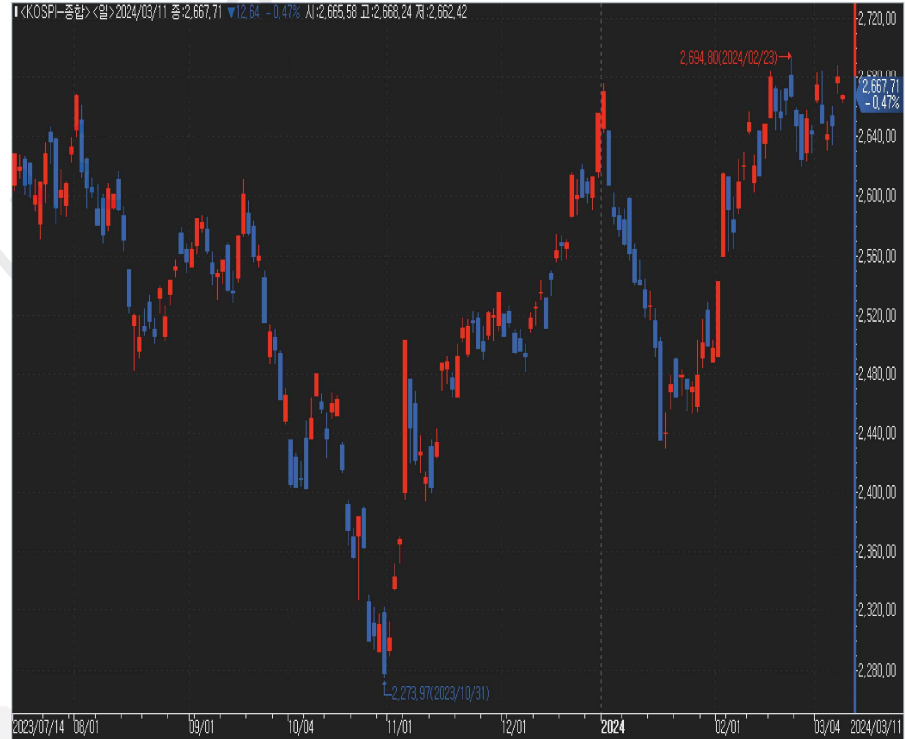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3/4~3/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1월 근원 PCE 가격이 전월비로 0.4% 상승하며 1년래 가장 급격함을 보였지만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부합함에 따라 미 국채금리 하락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보이며 출발. 이어 중국 정부의 5% 안팎 성장 전망 제시에도 그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가 3%로 재차 상승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그 영향이 다소 제한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양상
- 후반 들어,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이 금리인하를 지지한 기조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미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 상회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압력 요인 작용 속에 수급상의 국채선물 매수세 유입 등으로 급락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1월 PCE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2월 PMI 지표가 47.8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험선호도가 상승한 가운데 뉴욕증시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상승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의회연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기술주의 차익 실현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뉴욕 금융시장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제외한 주요 기술주 및 테슬라 등의 급락 속에 외국인 투자자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파월 의장 발언이 다소 비둘기 기조를 유지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미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상승 전환 흐름 나타냈으나, 대내적 이차전지 약세 등으로 하락폭 제한. 이어 주 후반, 전일 파월 의장 발언의 위험선호 영향 지속과 시총 상위 업종 강세 속 외국인 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세 이어지며 마감